

호남 적정가치 12만2000원???

메리츠증권, 2005년 경영실적 호조 ... 목표주가는 8만5000원

메리츠증권은 2월21일 호남석유화학이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돼 있다며 목표주가 8만5000원과 <매수> 투자의견을 유지했다.

유영국 애널리스트는 “최근 단기간의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 주가는 2005년 추정실적 대비 P/E 2.5배 수준으로 강력한 기업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다”고 주장했다.

또 “호남석유화학의 적정가치는 12만2000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목표주가 8만5000원은 적정가치 대비 30% 할인된 수준으로 2005년 추정실적 기준 P/E 4.0배에 불과하다”고 강조했다.

유영국 애널리스트는 “중국의 대규모 Polyester 증설로 주력제품인 MEG의 호황국면이 지속되는 등 긍정적인 석유화학 업황으로 2005년에도 경영실적 호조가 유지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아울러 롯데대산유화 및 KP케미칼 등 자회사 또한 업황 호조에 따른 긍정적 경영실적 전망이 예상돼 기업 가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.

<화학저널 2005/02/22>